

광주시, 시민 체험 환경교육 적극 나선다

환경공단 현장 대화...생활속 환경 실천 앞장 노력 姜시장 “시민 체험 교육 등 동행 전략 마련” 당부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해 시민 체험 환경 교육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은 21일 공단 다목적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현장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대화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과 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공단 직원들과 ‘환경기초 시설 내 안전사고 제로 및 악취 저감 노력’ 등 시와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자

유토론을 했다. 공단 직원들은 “환경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 광주시와 협업을 통해 환경 교육을 확대해 물 절약과 쓰레기 배출량 감소 등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시민들이 몸소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녹색에너지 전환 등을 체험하면 환경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환경공단은 환경 기초시설과 운영 설비가 많아 산재 발생 및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기관”이라며 “항상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환경공단은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 편의 도모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 공기업이다. 공단은 지난 7일 광주시 산하 2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년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공기관 구조 혁신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공단은 기술 혁신과 기기·시설 운영 고도화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110억원

의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했던 것을 일반용으로 전환, 공단은 최근 5년 간 과다부과됐던 요금 25억원을 환수했다. 또 올해부터 앞으로 매년 8억원 가량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기술 혁신을 통해 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연 3% 가량 늘림으로써 연 25억원의 LNG연료 대체 효과를 거뒀다. 여기에 슬러지처리 시설의 정기 보수 기간을 줄이는 등 운영 고도화를 추진해 10억여원을 절감했고 음식물 유분 및 사료 판매 사업을 통해 8억7천2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지난해 재정 혁신을 통해 사업비 110억원을 절감한 광주환경공단은 앞으로 5년간 500억원 가량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강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21일 오전 광주환경공단을 방문해 김병수 이사장 등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 상생배달앱 ‘땡겨요’ 지역상품권 결제 가능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소비자 합리적 선택 기대

전남도가 운영 중인 상생배달앱 ‘땡겨요’가 2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과 결제가 연동돼 소비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배달앱 ‘땡겨요’와 업무 협약을 해 현재 공공배달앱 ‘먹개비’와 동시에 공공·상생배달앱을 운영 중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연동에 맞춰 ‘땡겨요’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월14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5천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한 달 간 먹킷챌린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특정 브랜드 주문 달성 시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

는 첫 주문+재주문 이벤트, 1일 1회 랜덤으로 최대 2만3천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을 땡겨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은 매월 11일, 22일마다 진행되는 ‘땡데이’ 이벤트, 신한은행 연계 적금 가입 시 1만원 할인쿠폰 지급, 신한은행 계좌 결제 시 땡겨요페이 10% 적립 등 다양한 이벤트를 누릴 수 있다. ‘땡겨요’ 가입 접주는 가입비, 광고비 없이 빠른 정산 서비스와 2%의 낮은 중

개수수료로 입점이 가능하며 20만원 상당의 사장님지원금, 땡겨요 가맹점 전용 신한은행 대출 상품 및 마케팅 수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공공배달앱 ‘먹개비’ 뿐만 아니라, 상생배달앱 ‘땡겨요’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공공·상생배달앱·지역사랑상품권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상생배달앱을 많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시청서 어린이 문화공연 즐겨요”

6월까지 클래식·국악극 등 프로그램 선배

광주시청 대회의실이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 어린이 문화 공연장으로 변신한다. 광주시는 21일 “3월부터 6월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꿈꾸는 작은 별들을 위한 어린이 문화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복지재단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2회 운영한다. 첫 공연은 오는 29일 오전 11시부터 40분간 공연·예술·교육단체 ‘스윗 뮤직가든’이 ‘영유아를 위한 클래식’을 선

보인다. 이어 ▲4월26일 음악 사회적 기업 ‘루트머지’의 어린이 국악극 ‘방울이와 가아’ (오전 11시·오후 1시) ▲5월4일 ‘스윗 뮤직가든’의 ‘영유아를 위한 클래식’ (오전 11시·오후 1시) ▲6월28일 광주 뮤지컬단 ‘다락’의 ‘어린이 안전 뮤지컬’ (오전 11시) 등 총 6회 공연한다. 모든 공연은 무료다. 광주시는 3·4·6월 공연은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자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지역 유아·아동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받는다. /박성강기자

도, 올해 나무 430만그루 심는다

242억 투입 1천991ha 상수리·아까시나무 등 식재

전남도는 21일 “올해 43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주민 소득과 관광 자원화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목재를 수확한 산림과 산불 피해지 1천991ha를 대상으로 총 242억원을 투입해 편백, 상수리, 백합, 황칠나무 등을 심어 다양한 기능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대형 산불피해지 복구 70ha ▲양봉산업 육성 밀원숲 441ha ▲산불 예방 내화수림 60ha ▲지역 명품 경관 숲 105ha ▲목재 등 소득숲 1천315ha 조성 등이다. 소득원과 관광자원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순천과 함평지역에는 피해 소나무류 70ha를 제거하고 산딸나무, 배롱나무 등을 심어 주민 소득과 관광기반을 구축한다.

2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총 829ha의 산림이 소실됐으나 소나무류가 피해받은 322ha는 2026년까지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나머지 507ha의 피해 활엽수림은 줄기와 뿌리에서 왕성하게 움푹(맹아)이 발생함에 따라 제거하지 않고 자연 복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불에 강하고 잘 타지 않으며 수분 함량이 높은 활엽수를 주요 사찰, 산림휴양시설, 마을 주변에 심어 산불 예방 대화 수림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목재를 수확한 산림지역에는 편백, 상수리 등을 심고, 한계농지 등에는 짧은 감, 두릅 등을 심어 주민 소득원을 육성한다. 특히 3천여 양봉농가의 밀원 확충을 위해 아까시, 헛개나무 등을 심어 양봉 산업화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정기자

市,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광주시는 21일 “봄철 고농도 비산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특별 관리 공사장 등 대형 공사장과 민원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건축공사장 부지 경계선 방진벽·방진

망 설치, 토사류 운반 차량 상부 덮개 설치, 세륜·살수시설 적정 설치, 공사장 주변 도로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단속 기간 고의·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처분, 사법 처분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박성강기자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8상담문의
062-449-4446